

2. 마지막 일들 - 23.

# 불멸 (IMMORTALITY)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딤펴전 6:16)

\* \* \*

1.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불멸’의 의미는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기보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선포한다(딤펴전 6:16).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은 불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자유롭지 않고(히 9:27),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멸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행 17:28).

행 17:28 \_\_\_\_\_  
\_\_\_\_\_

사람이 불멸이 아니라면 사람에게에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언젠가 끝이 있고,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사람이 불멸이 아니라고 해서 언젠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는다. 세번째 포인트에서 말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우리는 불멸하시는 하나님이 최초로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일을 ‘창조’라고 말한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말한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유(有)’가 나온 것이다. 물론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던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없던 것이 생기는 일이 없다. 창조는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이미 있는 것이 나온 것이다.

롬 11:36 \_\_\_\_\_  
\_\_\_\_\_

존재하는 것이 소멸되려면 ‘유가 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없던 것이 나오지 않고, 나온 것이 없던 것으로 되돌려지는 법도 없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롬 11:36) 때문이다. 또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는 영원히 감추인 것이 있다(신 29:29). 그러하기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 밖의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멸이 가지는 또 다른 속성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은 봐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출 33:17-23; 요 1:14).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딤후 6:16b).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 곧 언약, 권세, 인자함, 사랑, 의, 자비, 은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끊김이나 분리나 먼저 일어나 나중 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만큼 알고 있을 뿐 영원하시고 불멸하신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Q.** 우리가 받은 구원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차후 해결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딤후 1:9 \_\_\_\_\_

\_\_\_\_\_

\* \* \*

## 2. 신자가 죽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보증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사 25:8). 하나님에게는 본질적으로 죽지 아니함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심으로써 죽지 않는 존재 즉,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불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불멸은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해주시는 반면, 사람의 불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고 주 앞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시 21:6).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는 말로도 표현한다(시 133:3; 요 10:28).

시 21:6 \_\_\_\_\_

\_\_\_\_\_

이 ‘불멸’의 뜻을 담고 있는 ‘영생’은 ‘부활’보다 큰 개념이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본적으로 ‘부활’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요 11:23-24).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 이상의 현실을 알려주시며 그것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불멸’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신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을 펼쳤을 때 예수님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눅 20:36)고 가르쳐 주셨다. 불멸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필연적으로 지니게 될 속성이고,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속성인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보증하시는 표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시다(고후 5:1-5). 그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시는 표시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즉,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금방 다른 일로 생각을 빼앗겨 잊어버리거나, 시련을 당해 예수님을 등지거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도중에 말씀을 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어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씀의 결과를 내는 것이다(요 8:51).

고후 5:1-5 \_\_\_\_\_

요 8:51 \_\_\_\_\_

우리는 보통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생활의 적용’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와 연결시켜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 혹은 ‘도덕이 바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도 그의 도덕성을 매우 민감하게 주목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시련이 있기까지는 의미가 있어 보여도 시련의 순간엔 사람이 어떤 모습일 지 알 수 없다. 도덕적 행동은 시련의 순간만 아니라 이생의 미혹을 받는 순간에도 가면을 벗고 전혀 딴 사람 같은 행동으로 변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성령을 지닌 사람, 즉 불멸의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은 오직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함으로 인하여 순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계 20:4). 예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련과 박해를 거치지 않는 ‘적용’이란 ‘도덕적 노력’에 불과하고, 이런 시도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다.

계 20:4-6 \_\_\_\_\_

**Q.**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인내’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롬 2:7-8 \_\_\_\_\_

\* \* \*

3. 죽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부활한 사람들이 불멸하는 삶이 둘째 사망이다.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 육체로 죽은 후 영혼이 음부에 처해 있다가, 천년 왕국이 찰 때 육체로 부활하여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 못에 던져진다(계 20:7, 11-15).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어떤 사람은 불멸이 ‘죽지 아니함’과 연결되는 개념이기에 죽지 아니함과 반대인 둘째 사망을 ‘소멸’로 해석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불 못에서 존재가 영원히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망’은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영혼과 하나님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끊어졌던 첫째 사망에 이어 ‘둘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끊어짐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다.

첫번째 포인트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신자의 불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영혼이 불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영혼으로서 육체와 함께 불멸하는 것이다. 즉, 불신자의 불멸은 그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육체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죽은 영혼’이 결합되어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불멸에만 있는 빛, 사랑, 의, 자비, 은혜 등이 영원히 공급되지 않는 삶을 ‘바깥 어둠’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나 ‘불(과 유향) 못’이라고도 한다. 불신자들만 아니라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그곳에 던져진다(계 20:10). 그곳의 삶을 총체적으로 요약한 말이 “밤낮 괴로움”이다. 그 이상의 그곳 현실은 하나님의 계시 밖이어서 알 수도 없고, 논할 이유도 없다. 오직 불멸의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영역이다.

계 20:7-15 \_\_\_\_\_

Q. 복음은 아는데 불멸에 관해 모른다면 과연 복음을 아는 것일까?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불멸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딤후 1:10-11 \_\_\_\_\_

\* \* \*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며 살던 우리가 영생과 불멸의 삶을 알았습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불멸의 삶에 대한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인내로 지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해 불멸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멸의 현실을 보이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우리가 불멸하며 살아갈 미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영원히 누리게 될 불멸의 삶에 항상 소망을 두고, 어떤 땅의 시련과 미혹도 이겨내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